조계종 본사주지協 신임회장 정묵 스님

19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종단 현안 등 보고 받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사진〉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11월 19일 해남 대흥사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후임으로 정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본사, 호압사 주지와 제12·13·14·15대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집행부는 '승려복지법 개정'과 '승가교육 개편' 등을 협의회에 보고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1월 6일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 등에 따른 기본교육기관 개편과 교과과정 개편 관련 여론 수렴 등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6차 회의는 내년 1월 21일 오후 1시 봉선사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승가교육 발전위해 머리 맞대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13·15·18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기관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교육원**

"사찰 승가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동국대·중앙승가대·기본선원은 전문과정으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표준교육과정 34과목은 너무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 과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승가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교역자 스님들의 제언들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11월 13·15·18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기관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역별로 나눠 송광사, 봉녕사, 동화사에서 진행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의 첫 공식 행보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승가교육 지표를 만들겠다"는 진우 스님의 운영 목표가 반영됐다.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승가대학·대학원 상주 교수들은 다양한 제언들을 내놨다. 교과목 부문에서는 교과목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6·7대 이후 조정된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13·15·18일 권역별로 진행
교육현장 목소리 수렴 목적
각양각색 비판·제언 쏟아져
의견 바탕해 교육 방향 설정

비구니 승가대학의 한 교수 스님은 "사찰 승가대학 과목이 34과목으로 정착된 것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커리큘럼을 따르다 보니 생긴 일로 알고 있다. 전통 강원에서는 전체 과목을 줄여나가고, 그에 맞는 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승가대, 동국대는 기본 과정 부문에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문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융합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승가교육 현안인 교육기관 조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사찰승가대학으로 단일화하고 중앙승가대·동국대·기본선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 체계가 완전히 다른 전통 강원과 일반 4년제 대학을 하나로 묶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비구니 교수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면 학위와 자격증을 받는데 전통 강원인 사찰승가대학을 졸업하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고생하며 사찰승가대학에서 수학하겠는가"라며 "교육목표가 완전히 다른 전통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한 테두리 안에 가둬놨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원의 기본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가교육 내용과 기관 개편을 논의할 때에 '출가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총림 승가대학의 교수 스님은 "승가교육 내용·기관 개편을 이야기할 때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 승가교육기관은 단순히 교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법, 습의 등을 교육하고, 올바른 수행관을 심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기본교육기간은 수행자를 양성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육교역자 정년제와 연구성과물 제도 폐지,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의 의견들도 제기 됐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초 교리에 충실한 승가교육을 추진하고 바른 승가상 정립에 힘쓸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승가상이 바로 서고, 스님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심을 받도록 위상을 갖춰간다면 출가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 종단이 함께 이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은 11월 17일 안양본원에서 2019합동수계식을 개최했다. 수계식에 참여한 어린이 불자가 연비를 받고 있다.

5000여 불자 한마음선원 신도로 거듭나

11월 17일 안양본원서 합동수계법회 봉행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7일 안양본원에서 2019년 합동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국내 15개 지원에서 대중들이 운집했으며, 4395명이 연비, 362명이 새로 계를 받는 등 5000여 명이 불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 손은지 씨는 수계자를 대표해 "탐진치 삼독심을 녹이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한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사장 혜수 스님은 수계자들을 대표한 진주지원 정종수 씨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은 "해마다 계를 받지만 사실 이런 계행의 실천은 생활 속에 있다. 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늘 마음을 맡기고 생명을 존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청정한 계행을 지켜나가자. 또한 항상 오계를 잘 지키는지 살펴 마음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연비를 받은 만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진 대폭 교체

제324차 이사회서 이사 선임
돈관 스님·정충래 이사 유임
정문·현문·원명·성월 스님 선출
경주캠총추위 규정 개정 승인도


돈관 스님


정문 스님


현문 스님


원명 스님


성월 스님

동국대 신임 이사로 돈관·정문·현문·원명·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개방형 이사로는 정충래 前 영석고 교장이 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1월 20일 학내 로터스홀에서 제324차 이사회를 열고 △경주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2019회계연도 동대부영석고 추가경정예산 승인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복수추천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이사 후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선출했다. 오는 12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돈관 스님의 후임으로는 돈관(은해사 주지) 스님이 유임됐다. 12월 19일 임기만료되는 성타 스님의 후임에는 정문(중앙종회의원) 스님이 선출됐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현문(통도사 주지) 스님이, 정념 스님의 후임에는 원명(봉은사 주지) 스님이, 성효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성월(前 용주사 주지)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다만, 일관 스님의 후임은 이사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선출되지 못했다.

개방형 이사로는 정충래 前 영석고 교장이, 감사 호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호산 스님이 각각 유임됐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의 후임 선출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중앙·지방종회의원 총선거 실시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0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및 지방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총선거는 태고종 본산급 사찰을 포함한 교구종무원 30개 선거구와 5개 직능단체를 합친 전체 35개 선거구 중 31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중앙종회의원 정족수 61석 중 중앙종회의원 50석과 각 선거구별 지방종회의원에 대한 당선 확정을 결정했다. 선거를 실시한 31개 선거구는 26개 교구와 5개 직능직단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 측은 "제15대 총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종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안정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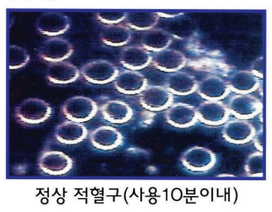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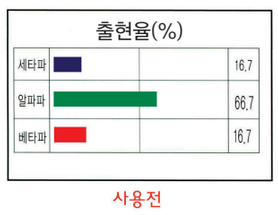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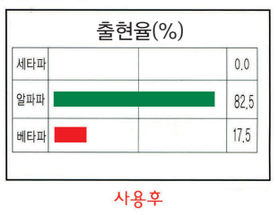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